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여의도의 3.5배 숲 조성 효과

〈산림 1,031ha〉

친환경 급식의 온실가스 저감 소나무 162만그루 심은 효과

연평균 2만5500명씩 4년간 총 10만2000명 일자리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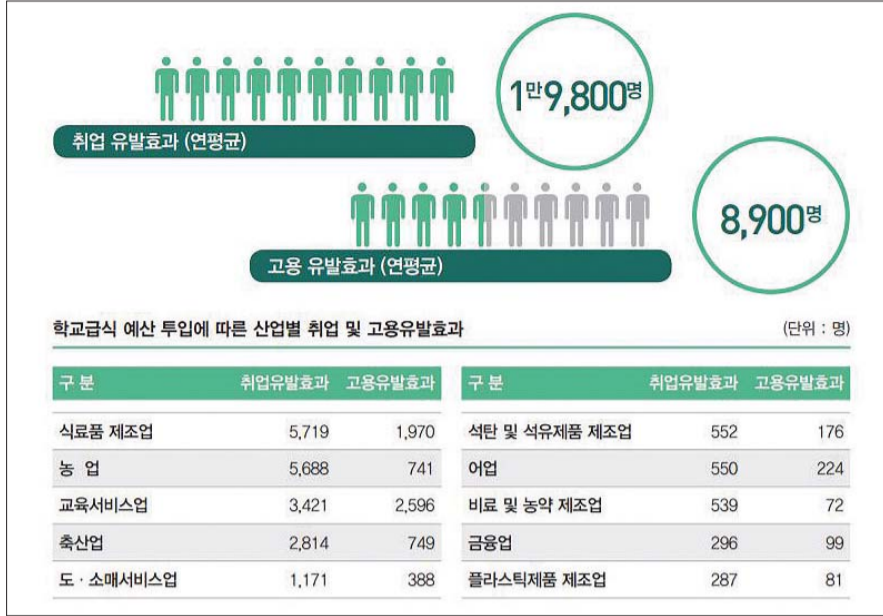
“연간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 숲 조성 과 맞먹는 온실가스 저감, 연 평균 8900명 고용유발효과, 무상 의무교육 실현과 도 농상생...”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추진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들이다.

시는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백서’를 통해 이같은 친환경무상급식의 환경·산업·교육적 효과를 13일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업 후 첫 결재서류가 학교 친환경무상급식이었는데 감회가 새롭다. 전국 최초로 추진한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이 2014년에는 초·중·고교 의무교육 기간에 대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함으로써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실현

〈친환경 급식의 취업·고용유발 효과〉



〈자료=서울시친환경무상급식 성과백서〉

했다”며 “이는 새로운 복지국가의 길을 열기위한 서울시를 비롯, 교육청, 학부모, 민간 전문가와 단체들, 수많은 시민들의 뜻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친환경무상급식은 지

역순환경제활성화는 물론, 지역 농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효과, 모든 국민들이 고루 잘 살수있는 균형잡힌 발전 전략으로 전환됐다”면서 “이번 백서를 통해 친환경급식의 의미,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무상급식 방식은 ‘친환경’이란 이름에 걸맞게 환경보호 효과가 눈에 띈다. 유기 및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업은 관행 농업에 비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투입재의 투입량이 적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대표적인 저탄소 농법이다.

시가 1년간 공급하는 친환경급식은 약 162만5818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었다. 이는 산림 1031ha, 여의도면적의 약 3.5배 규모(학생 1인당 4.39평 넓이)의 숲을 조성한 효과와 맞먹는다.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BA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전망치를 말한다.

이와함께 친환경급식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시가 분석한 결과, 취업유발 효과는 연평균 2만5500명씩 4년간 총 10만2000명의 일자리, 고용유발효과는 연

평균 8900명씩 4년간 총 3만54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통센터의 설립과 식품제조업의 생산 증가로 인한 고용확대가 주요 유발원인으로 작용했으며, 농업 등에 종사하는 농가도 늘어나게 된다는 점 등도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효과로 나타났다.

시는 2011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했으며 2014년에는 초·중등 의무교육기간에 이 사업이 적용되도록 했다. 백서는 이 무상급식을 통해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실현한 것과 함께, 학생들의 인권·행복권·건강권을 실현하며 단순히 점심 한 끼가 아닌 상생과 배려의 가치가 담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일보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서울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지역 관점에서 도농상생을 실현한 가치를 강조했다. 이 백서는 오는 31일 자치구 동주민센터 민원실,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되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36년 동안 꺼내지 못한 태극기였습니다’

서울광장에 광복 73주년 기념문구 새겨

서울시, 영화 상영·음악회 등 마련

서울시는 광복 73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의 꿈새김판 문구를 ‘36년 동안 꺼내지 못한 태극기였습니다’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문구는 이달 말까지 게시된다.

시는 일제강점기 동안 꺼내지 못했던 태극기를 광복 직후 남산에 게양하던 감격의 순간을 통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서울광장의 꿈새김판을 새로 단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제73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시민청 등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

했다. 광복절과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처음 맞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14일에는 영화 ‘아이 캔스피크’와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각각 시민청과 삼각산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무료 상영한다.

이날 행사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 메시지를 적어 나비모양으로 접어 보내는 ‘희망의 나비 날리기’와 태극기의 의미를 이해하며 그리는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15일 저녁 8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서울시향 광복 73주년 기념음악회’는 라이브서울과 유

튜브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독립운동가 임우철 선생(99)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93)가 들려주는 광복이야기는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서울시 대표 SNS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광장 꿈새김판과 광복절 행사를 통해 단순히 그날의 기쁨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불행한 역사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과 위안부 할머니 등 광복의 이면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부동산 투기 점검나선 정부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서울 전역에 대해 주택매매자금 조달계획서 등에 대한 집중 분석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소 현장 점검, 재건축 조합 조사 등 전방위 단속을 시작한 1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단속반이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단지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연립뉴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최대 4500만원 지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 500호 중 200호 신혼부부에 지원

서울시는 무주택서민의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지원하는 500호 중 200호는 신혼부부에 특별 공급한다.

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을 도입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달 말까지 총 8014가구를 지원했다. 지원기간은 최대 10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한다.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인이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20~24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제99주년 3.1절 기념 일제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안장식 모습. 〈서울시〉

日 강제징용희생자 유해 35위 시립묘지 안치

서울시, 16일 안치의식 진행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5위가 파주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 추가 안치된다.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유해안치 및 봉안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광복 73주년을 맞아 추가로 귀향한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35위의 안장식을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도 파주 서울시립 용미리 제2묘지공원에서 종교의식을 겸한 안치의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고국을 가슴에 품은 채 세상을 떠난 원

혼을 위해 시는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삼일절에 이어 ‘일제 강제징용희생자 유해 봉환위원회’의 요청으로 유해안치 및 봉안시설을 지원키로 했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제노역과 침략전쟁에 동원돼 갖은 고통 속에 처참하게 희생된 상당 수 일제 강제징용자들의 유해는 아직까지도 일본 및 태평양 군도 등에 산재,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삼일절에 각 33위(총 66위)를 봉안 안치한 서울시는 이번 광복절을 맞아 35위의 유해를 안치하며, 총 3회에 걸쳐 101명의 원혼을 달래게 됐다. 〈오진희 기자〉

내달 청계천 생태학교 운영 시설공, 프로그램 참가 접수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9~11월 열리는 ‘청계천 생태학교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태학교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운영된다.

9월에 진행되는 ‘청계천아! 나랑 놀자!’는 계절별로 청계천에서 접할 수 있는 동·식물을 관찰하고, 솔방울을 활용한 가랜드 만들기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10월 열리는 ‘가을 열매 숨바꼭질’ 프로그램에서는 청계천에 숨어있는 열매들을 찾아 나만의 열매 도감을 만들 수 있다.

11월에는 빈 병으로 양초 만들기를 하는 ‘생활환경교육’과 청계천내 생태계 교란 식물을 제거하는 ‘위해식물 제거대작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위해 식물 제거 활동은 9~10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참여한 학생들은 자원봉사시간 2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우리 구청 소식

중구, 일본인 명의 건축물 청산

서울 중구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상에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관내 건축물 636건을 모두 청산한다고 13일 밝혔다. 건축물대장에 일본인 명의로 나오는 106건 중 건물에 없는 97건은 구에서 직권 말소한다. 존치를 증명할 수 없는 9건에 대해서는 현 소유자가 말소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구는 등기말소를 신청하는 현 소유자에게 무료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마포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접수

서울 마포구는 24일까지 특별한 사유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에 대해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원안자 부담 원칙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개인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일 때 적용된다. 〈김현정 기자〉